

# 백제시대 폐사지 본격 조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공주·익산지역 중심

부여·공주·익산 지역에서 임으로만 전해져왔던 백제시대 폐사지(廢寺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이하 연구소)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백제 문화권의 중심지인 이들 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요 폐사지에 대한 중장기 학술조사를 추진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문혀져 왔던 백제시대와 백제문화권 유적의 올바른 복원·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건조만 알려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폐사지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소는 올해 첫 조사로 지난 2월 23일부터 30일간 부여 관음사지와 밤골사지를 시굴조사한 결과, 건물지 흔적과 백제시대 연화문와당(蓮花文瓦當·연꽃 무늬가 새겨진 기와 일부)과 치미(지붕 옹마루 끝에 다는 장식) 등을 출토했다고 밝혔다. 연화문와당은 학계에서는 이미 백제시대 고유의 문양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로써 이 두 폐사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부여 관음사지 조사결과 발견된 기와 조각들.

그동안 백제시대 폐사지에 대한 조사는 1960년대 이후 국립박물관과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금강사지와 임강사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진행한 익산 제석사지에 대한 학술조사에 불과했다. 백제문화권 폐사지를 신라시대에 비해 관심이 덜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조사될 부여지역 폐사지는 가림리 사지, 석목리 폐사지, 중정리 폐사지, 임강사지 등 6곳. 이 가운데 임강사지는 60년대 동국대 박물관 연

구에 대한 보존조사로, 이미 건물 9개동과 연화문 수막새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연구소 이주현 학예연구원은 "백제시대 폐사지 종합학술조사는 매년 2~3곳의 유적을 선정해 향후 10년간 조사를 실시한다"며 "확인된 유구의 구조와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폐사지 보존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 왜관서 금동불상 출토 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경북 왜관 지방 산업단지 건설부지에서 금동불상(사지)이 출토돼, 이 지역이 과거 사찰과 관련된 터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단장 김정기)은 4월 2일 '왜관 일반 지방 산업2단지 건설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지역은 6~7세기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 사이에 사찰과 관련된 시설물이 있었던 터로 추정되며, 발견된 건물지와 배수로 등은 조선시대나 그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연화문(蓮花文)기와·백자·토기·옹기 조각과 금동불상 1점 등의 유물과 기단·축대 등 유구 36기가 출토됐다.

문화재조사단은 "이 지역은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물과 유구는 이 지역의 문화상을 복원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



### 자살과 안락사

요즘 뉴스에는 인터넷을 통해 동 반 자살했다는 내용이 종종 나온다. 자살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살은 안락사의 모양과 유사하기도 하다. 하지만 안락사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생각해 볼 때 자살을 간단히 말하는 것은 어렵다.

사대(四死)로 이루어진 육신이 고통으로 가득 차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주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자신과 주위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과연 누가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

한편, 현대의 생명과학은 예전 같으면 죽을 사람마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발전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중환자

다. 단지 특정 조건에 의하여 특정 모습을 지니는 것이기에, 뇌나 심장, 허파 등의 장기 기능이 멈추는 어느 특정 시점만으로 죽음을 정의하여 생명 전체의 종점으로 판단하는 현대 생명과학의 무의미한 시도에 편승할 필요는 없다. 삶과 죽음은 오직 원인과 결과로서 멈추지 않고 변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을 포함해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으며, 또 집착하여 붙잡을 수도 없음을 잘 알게 된다.

하지만 집착 없이는란 결코 삶과 죽음을 무의미하게 바라본다거나 가볍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이 삶과 죽음에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순간에 주어

## 죽음이란 결국 삶의 문제로 귀결 깨어있는 지혜로 해답 찾아야

실에서 영구 식물상태로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한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생명과학의 발전에 바탕을 둔 현대 의학의 업적을 환호하고 매년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안심하고 즐겨워하며, 동시에 자살하는 이들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기 이전에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

죽음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죽음을 연장하거나 앞당기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죽음의 문제란 결국 삶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생명이란 삶과 죽음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지니고 단속적(斷續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이

진 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로이다. 죽느냐, 사느냐가 험릿게는 중요했는지 모르나 불자에게는 우문(愚問)이 된다. 안락사와 자살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며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선택의 순간에 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인간은 연젠가는 죽는다. 굳이 앞당길 필요가 있겠는가. 또 동시에, 인간은 연젠가는 죽는다. 굳이 죽음을 미루어 무엇 할 것인가. 오직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음이니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모양새이며,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자신의 깨어있음에 스스로의 여러 삶을 밝혀 지혜를 지니는 것으로 그 선택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 마애삼존불 주변 암반 붕괴 가능

### 이찬희 교수 영주 가흥리 암석 진단 결과 발표

지난해 6월 집중호우로 마애삼존불상 좌측 앞부분의 암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석불좌상이 발견됐던,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 주변 암반의 붕괴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27일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19회 학술대회에서 공주대학교 이찬희 교수 등은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의 암석학적 분석과 안전 진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공주대 보존과학연구소가 영주시의 의뢰로 마애삼존불을 안전진단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의 성격을 띤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애삼존불상은 불상 자체의 풍화훼손이나 절리에 의한 위험보다는 주변암반의 붕괴 가능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삼존불상 주변에

는 크고 작은 불연속면이 중첩되어 있어 각 암괴의 전방 도괴(倒塊)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삼존불상 주변 암석에서는 식물의 뿌리조직과 지의류의 군사체도 관찰돼 생물학적 훼손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찬희 교수는 "암반이 웅기되는 등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구조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암반에 절리나 불연속면에 얽혀 있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흥리 마애삼존불의 구조적 문제는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마애삼존불 주변에는 일반 진동을 검사하는 자동 계측기가 설치돼 있으며, 안전 진단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다. 오유진 기자

## 수행론 속 '여성억압' 풀어야

### 조승미 씨 '불교수행론과 젠더문제'서 지적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2천여 년이 지난 현재의 불교수행론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까? 4월 10일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제23차 학술발표회에서 조승미(동국대 박사과정 수료) 씨는 '불교수행론과 젠더문제'를 발표하며 "아니다"라고 말한다. 불교수행론이 여성억압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수행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불교와 여성주의의 유사성만을 살펴왔던 기존의 불교여성학의 관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불교의 언어로 여성주의를 설명하고 이를 여성의 수행현실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조승미 씨는 "육정이 많아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여성혐오론부터 여성비하적인

교단의 관행, <부모은중경> 등에서 보이는 모성찬미론까지 이들 모두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불교수행론"이라며 "여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수행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여성의 경험은 언어로 표현되지 못해 수행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불교수행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조 씨는 지혜와 감정, 마음과 몸으로 이원화된 수행원리가 여성을 억압하는 원리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조 씨는 "선불교는 기존의 불교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와 연결되지만, 선불교의 계보성은 지극히 가부장적"이라며 선불교의 여성주의적 가치와 한계도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운명적인 현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범은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안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다수의 영혼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 연구소 약도



「파동명상 요법」을 수련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또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운명을 읽어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말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대**이다. 현생의 삶은 자신의 전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 예정되어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파동명상요법을 통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적 사건과 영혼적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4월 둘째주, 넷째주 (화~금) ◆ 강의장소: 서울, 부산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및, 전화문의의 비람)
  - ① 파동명상 전문가: 파동명상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수려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전문반을 수료한 자로서 본인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지도자 자격증 수여함.)